

도로에 뒤엉킨 차... '전쟁터' 같은 강남 일대, 복구작업 한창

강남권 일대 폭우로 인근 침수 피해 잇따라 뚜껑 없는 맨홀, 주변엔 흙탕물·쓰레기 가득

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강남권 일대에서 전날 밤부터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날이 밝으면서 각 지자체 등이 피해 복구에 나선 상황이지만 침수된 차량이 도로 곳곳에 놓여 차선을 막고 전기·수도가 끊기는 등 시민들 불편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 남부 지역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일부 지역은 시간 당 강수량이 100mm 이상을 기록하는 등 강남의 시간당 최대 강우 처리 용량을 웃도는 많은 비가 내려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찾은 강남역 인근은 여전히 혼란한 모습이었다. 도로 위 뚜껑 없는 맨홀로 빗물이 역류해 주변엔 흙탕물이 가득했고 쓰레기들도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맞은편 인도엔 개진 보도블럭 등 시설물 수습개가 떨어져 나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주차돼 있던 두 대의 차량은 빗물에 휩쓸린 듯 자전거 거치대 등에 걸쳐 있기도 했다.

강남역에서 서초역으로 향하는 2차선 도로에는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외제차를 비롯한 승용차 7대가 줄줄이 늘어져 한 차선을 가로 막고 있었다. 전날 갑자기 들어찬 빗물에 운전자들이 급히 몸만 빠져나온 탓이다.

서초동 한 아파트의 앞 3차선 도로에서도 시내버스를 포함한 다수 차량들이 덩그러니 주차돼 있어 다른 차량들의 진입을 방해했다. 전기 공급이 끊겨 신호등 작동도 멈춘 상태였다.

도로 상황이 더 혼잡해지는 것을 우려해 인근엔 차량 진입을 막는 경찰 안내선이 설치됐다. 이후 도로 한가운데 놓여 있던 침수된 광역버스를 견인하는 등 피해 복구가 진행됐지만 인근 직장인들과 주민들은 전기와 물이 끊겨 불편함을 호소했다.

서초동 진흥아파트에서 만난 50대 주민 김모씨는 "전기와 물이 끊겨서 아침을 바깥에서 사서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라며 "구축 아파트라서 그런지 어젠 1층 주차장에서도 배수가 잘 안 돼 물이 바퀴까지 찼다"고 전했다.

강남역 일대에서는 출근은 했지만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곳곳에서

보였다. 건물 전기 공급이 끊겨 회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자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이었다.

건물 밖에 서 있던 오모(50)씨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전기가 끊겼다고 하더라"며 "물도 안 나온다는데 일단 출근은 했지만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등은 매장 안에 찬 빗물을 직접 퍼다 밖에 내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강남역 인근 지하에 있는 한 술집 앞에는 배수펌프가 동원돼 가게 내부 빗물을 빼내고 있었다. 옆 건물 관계자들은 플라스틱 대형 쓰레기통 6개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에 들어찬 빗물을 퍼 나르기도 했다. 건물 관계자는 "강남구 인근 지하 주차장 대부분이 침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전된 건물에 입점해 있던 한 은행 관계자는 "흙탕물이 ATM기 부스로 넘쳐서 직원들이 정리를 하는 중"이라며 "작년에 강남으로 이사 왔는데 이런 침수 피해가 생길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전날 쏟아진 폭우로 서울 강남 일대는 피해가 속출했다.

강남역 사거리에서는 폭우로 하수가 역류하면서 도로와 차도가 물에 잠겼다. 서초구 우성아파트 사거리·대치역 은마아파트 일대 도로



도 침수돼 자동차가 물에 반쯤 잠겨 떠나지 못하다가, 삼성동 코엑스 내 매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최이슬기자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의무화”... 미설치시 1500만원

고용부 소관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미설치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산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사업장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등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1500만원 이하, 관리기준 미준수 시에는 1000만원 이하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과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

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년 후인 내년 8월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고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해당 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복원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창고업이다.

고용부는 또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양성 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석면해체 및 제거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 및 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을 위해 18일부터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김재환기자

‘91개 보험가입’ 허위·과다입원 수법으로 11억원 상당 보험금 챙긴 일가족 구속

매달 보험금 납부액만 200만원 상당

과거 병력을 숨기고 90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상해, 질병 등으로 속여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1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검거, 이 중 사실상 관계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 91개에 가입한 뒤 사고 또는 질병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부산과 경남지역 입원이 쉬운 중·소형 병원 37곳을 옮겨 다니며 허위·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244차례에 걸쳐 11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04년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객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종류를 알게 됐고, 이후 자신들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명의로 총 91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금으로 200만원 상당을 납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했고, 심지어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추가로 가입한 것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이들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만큼만 입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